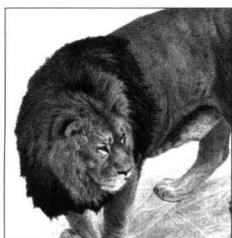


애도가愛圖家의 삶은 행복하다

글_ 김지연(숲해설가, 길동자연생태공원 코디네이터)



6월초, 조류도감을 잃어버렸다. 아차산에서 숲해설을 하다가 손에 짐이 많아 잠깐 참가자에게 맡긴 것 같은데, 돌려준 나도, 들고 있던 사람도 깜박 잊어버린 것 같다. 나는 조류전문가도 아니고, 겨우 100여 종 남짓하게 새를 본 '겨우 중을 동정하는 단계' 인 초보자이다. 잃어버린 도감은 구입한 지 3년 정도 지났다. 페이지의 여기저기에 특징을 기록해 두었고, 산과 들로 다니느라 표지에는 손때가 묻은 그 책은 나에게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책이다. 필요에 의해 똑같은 책을 다시 구입했지만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한동안 다가서기 어렵듯 새 책에도 인이 박히려면 여러 번의 계절을 넘겨야 할 것이다.

나는 숲해설가다. 숲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하여 지식

과 경험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므로 생물의 정확한 이름을 아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도감은 필수품이다. 직업상 나는 거의 매일 도감을 펼친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감만도 20여 종 이상이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들어 다양한 도감이 출판되고, 보는 사람을 고려한 기획으로 제작되는 도감이 출판되는 것은 행운이다.

책을 읽으며 행복해 하는 사람들을 애서가라고 한다면, 도감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애도가愛圖家라 해야할까? 처음 제비동자꽃을 보고 반해 도감을 찾아 그 이름을 알았을 때는 그 이름을 처음 붙인 예전의 누군가와 시간을 건너뛰어 동질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가끔은 40여 종에 가까운 제비꽃의 이름을 헤아리다가 지치기도 하지만 이름을 앎으로서 그 생물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도감을 보는 사람만의 특권이다.

도감은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니다. 도감을 출판하는 출판사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올 컬러에 하드 장정으로 공들여 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도감이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집대성하는 것이므로 판매 부수만을 고려하진 않겠지만 출판사 입장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도감 판매를 고집할 순 없는 것이다. 게다가 책값도 만만치 않다. 구입할 책을 읽은 횟수로 나눈다면 한 번 읽고 마는 여느 대중소설이나 베스트셀러보다 비싸겠지만 말이다.

3년 전쯤 생태관광에 대한 논문을 끝낸 후 “과연 우리나라에 생태관광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서양인들이 즐겨 찾고 국가의 주 수입이 생태관광에 의존하고 있다는 네पाल을 여행한 적이 있다. 입산료를 내야 히말라야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생태관광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정작 도심이나 산 부근 서점에 산에 사는 동·식물에 대한 책지는 없었다. 여행중에 친절하고 선한 네पाल인들을 만나 마음은 부유해졌지만, 산에 오르면서 네पाल이 생태출판 시스템이 턱없이 빈약한 나라임을 실감했다. 반면 미국은 어떤가? 작년 여름 요세미티 국립공원, 레드우드 주립공원들과 방문자센터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나온 도감을 발견했다. 영어가 세계공용어이니 굳이 번역하는 수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 나라 같으면 서울의 대형서점에 가도 구하기 힘든 책을 작은 방문자센터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도감을 애용하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감을 만들어준 출판사들에게 감사하며 그간 경험으로 앞으로 도감 출판에 있어 몇 가지 바람을 적어본다.

첫째, 보다 전문화된 도감의 출판 확대

도감 출판에 있어 우리 나라는 네팔과 미국의 중간쯤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국립식물원의 방문자센터나 대형서점의 자연서적 가판대에서 도감이 전시, 판매되고 있고, 2000년 이후부터는 출판사가 고려하는 독자층도 어린이부터 성인, 관심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부터 전문가까지 비교적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제작하려는 노력이 보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보리출판사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도감이 출판되고 있고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아 판매량이 예전의 도감에 비하여 많다고 들었다. 보리의 책 중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 기획, 제작한 책도 있고, 북한의 책을 검토하여 감수를 받아 새로 편집한 책도 있다. 보리의 특징은 설명하려는 동·식물이 그림으로 되어 있으며, 도서 구입층을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10년 전 이런 책이 나왔더라면 팔렸을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다. 10년 전에 비하여 국민의 경제적, 지적 수준도 높아졌지만 무엇보다 7차 교육과정 이후 체험 학습이 늘고, 사회교육의 확대로 직접 자연을 대하여 학습할 기회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주 5일제 도입과 함께 가족이 산과 들로 나갈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도 도감 출판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읽기 쉬운 도감으로 독자층이 확대되어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자연에 대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본다. 그러나 같은 주제라도 입문서와 전문서가 있듯 도감에도 입문서 수준의 도감과 전문서로서의 도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리' 식의 출판물도 계속 확대되어야겠지만, 다양한 자연물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설명한 전문적인 도감도 필요하다.

둘째, 전문 도감을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

전문적 도감을 만들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 주변에는 아마추어로서 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책으로는 정확한 종 동정이 어려워 일본 서적이나 외국 서적을 구입한다. 그런 분에게 필요한 도감을 내려면 그만큼 그 분야에서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입시철만 되면 자연과학이 인기 없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연구할 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력이 연구에 몰두할 만한 사회여건이 갖추어 있지 않다. 인력이 없으니 당연히 도감도 만들기 힘들다. 순수과학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영어도감의 필요성

조류도감이 영어로도 출판되었다. 가끔 공원을 찾는 외국인에게

궁색하나마 학명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 관광하러 온 소수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동·식물에 대하여 영어도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방문의 해도 지냈고, 국제적인 경기대회로 외국인을 많이 유치하기도 하지만 자기자신 산의 아름다움과 삼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자연환경으로도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는 도감

내가 일하는 생태공원은 방문객들에게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다. 자연생태에 대한 이야기란 과거이야기가 아니라 "Now and Here" 즉, 바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것이다. 도감에도 과거형과 현재형이 있다. 표본을 보듯 모습을 알려주는 것은 과거형이고, 장마철을 지나 더운 7월엔 어떤 모습이냐 행동을 하는지 식의 생태 및 습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현재형이다. 재미있는 책은 책장을 넘기기가 아쉽듯 잘 만들어진 도감은 독자가 쓰여지지 않는 현재형까지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 다양한 현장을 체험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 의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도감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섯째, 용어의 한글화

마지막으로 도감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용어다. 한문표기가 많아 뜻을 알려면 한문을 알아야 한다. 점점 한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식물도감을 보다 보면 한문을 알아야 뜻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많다. 결국 용어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뀌는 작업도 필요하다 하겠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나무만 40여 종이 넘게 있고, 그 아래에는 잔디 때문에 여지없이 뿔뿔하면서도 어느새 날아와 새싹을 키우는 '잡초'가 보인다. 도무지 꽃이라고는 피우지 못할 것 같이 생긴 회양목이 진한 향기로 사람을 유혹하며 봄을 알리듯이, 내 주변의 작은 꽃, 나무, 곤충 하나가 삶을 풍성하게 한다. 나와 자연이 함께 살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집집마다 최소한 도감 한 권씩은 책장에 꽂혀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 ■

